

보도시점 2025. 5. 3.(토) 11:00 배포 2025. 5. 2.(금) 16:00

## 한일중/아세안+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, 아시아개발은행(ADB) 연차총회 참석

- 역내 경제·금융분야 협력방안 논의 예정 (아세안+3 재무장관회의)
- 국제개발환경 변화에 따른 ADB 발전방향 등 논의(ADB 연차총회)

기획재정부(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출장 수석대표)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한일중 및 아세안+3 재무장관·중앙은행총재 회의, 제58차 아시아개발은행(ADB) 연차총회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.

### 〈 한일중 및 ASEAN+3 재무장관·중앙은행총재 회의 〉

5.4일(일)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제28차 아세안+3(한·일·중)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(ASEAN+3 Finance Ministers' and Central Bank Governors' Meeting)가 개최된다.

※ 아세안 10개국: 브루나이, 캄보디아, 인도네시아, 라오스, 말레이시아, 미얀마, 필리핀, 싱가포르, 태국, 베트남

본 회의에는 아세안+한일중, 13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를 비롯하여, IMF, ADB, AMRO 등 국제기구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. 최근 국제 통상환경 변화 등 세계·역내 경제동향 및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, 역내 국가들의 안정적 성장 및 역내 금융안전망(CMIM\*) 강화 등을 위한 경제·금융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.

\*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: 아세안+3 역내 회원국 위기시 유동성 지원을 위한 다자간 통화스왑(총 2,400억불 규모, 우리나라 분담금 384억불(분담비율 16%))

한편, 기획재정부는 아세안+3 회의에 앞서 한·일·중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도 참석하여 한국의 경제동향 및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, 아세안+3 금융협력 의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.

## 〈 ADB 연차총회 〉

아울러, 5.5일(월)에는 제58차 ADB 연차총회 개회식과 ADB 비즈니스 세션(거버너 총회)이 개최된다. 올해 비즈니스 세션은 ADB 칸다 마사토 신임 총재(2025년 2월) 취임 이후 개혁전략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. 기획재정부는 회원국별로 진행되는 거버너 연설에서 신임 총재의 ADB 개혁 방향과 ADB 발전 전략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제언할 예정이다.

※ 주요 출장결과는 추후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

< ADB >	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	책임자	과 장	범진완	(044-215-8720)
		담당자	사무관	김지현	(jhkim1229@korea.kr)
< ASEAN+3 >	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	책임자	과 장	심승현	(044-215-4830)
		담당자	사무관	윤현곤	(gonnnn@korea.kr)

